

碩士學位論文

정주석 이미지를 응용한 도제조명등 연구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工藝디자인 專攻

金 男 淑

2008年 7月

정주석 이미지를 응용한 도제조명등 연구

指導教授 許 敏 子

金 男 淑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7月 日

金 男 淑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박 현 영 印

委 員 허 민 자 印

委 員 이 광 진 印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08年 7月 日

목 차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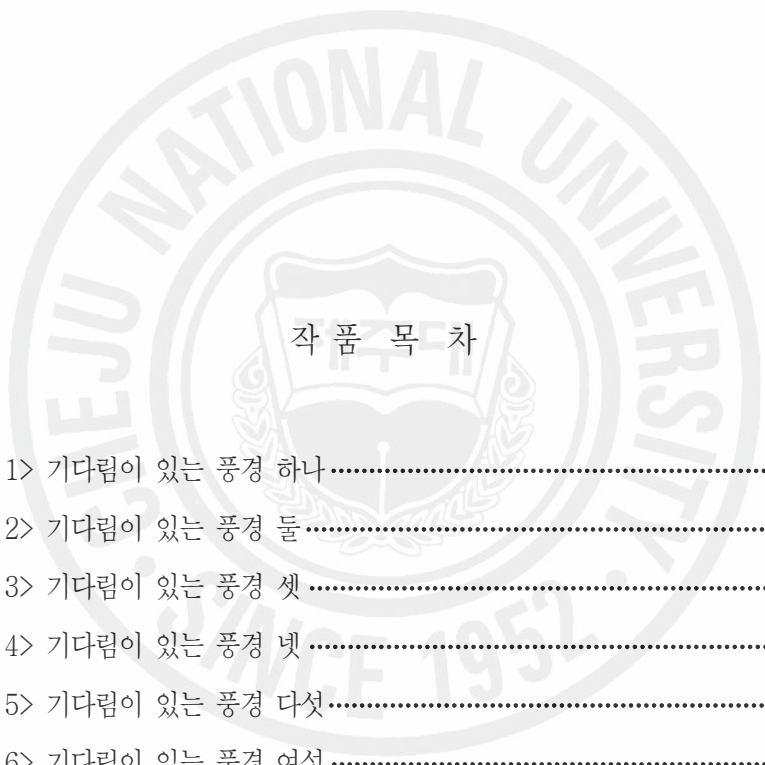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조명등의 개념과 특성	3
1. 조명등의 개념 및 역사적 변천	3
2. 실내 공간에서의 조명등	7
3. 도제 조명등의 조형적 특성	9
III. 작품제작의 이론적 배경	12
1.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정주석의 역사	12
2. 정주석의 형태와 조형성	16
3. 정주석을 주제로 한 작품	18
IV. 제작과정 및 시작품 설명	20
1. 제작 의도	20
2. 제작 과정	21
3. 시작품 설명	24
V. 결론	38
참고문헌	40

도 목 차

<도 1> 빌헬름 바겐펠트가 디자인한 책상램프.....	6
<도 2> 꺾어지는 책상 램프	6
<도 3> 아르테미데 제품	8
<도 4> 침실 조명.....	8
<도 5> 거실조명	8
<도 6> 욕실조명	8
<도 7> 알토조명, 테이블라이트조명등	10
<도 8> Lighting, 신세영 作	10
<도 9> 치유의 정신 5 - 상상여행, 백진 作	10
<도 10> 나무이미지들, 김정옥 作	11
<도 11> Fantasia, 허민자 作	11
<도 12> 빛 2004, 최재훈 作	11
<도 13> 흙과 빛의 하모니, 최재훈 作	11
<도 14> I have got beautiful day, 조연수 作.....	15
<도 15> 정주목	15
<도 16> 정주석	15
<도 17> 정주목(정낭)	15
<도 18> 정낭이 한 개 걸쳐진 모습	15
<도 19> 정낭이 두 개 걸쳐진 모습.....	15
<도 20> 정낭이 세 개 걸쳐진 모습.....	15
<도 21> 구멍형 정주석	17
<도 22> 홈형 정주석	17
<도 23> 두 개의 구멍이 있는 정주석	17
<도 24> 한 개의 구멍이 있는 정주석	17
<도 25> 다섯 개의 구멍이 있는 정주석	17
<도 26> 정주목의 모뉴멘탈리티, 정관모 作	19
<도 27> 제주-이미지, 김정은 作	19
<도 28> 기억속으로, 양용방 作.....	19
<도 29> 민구이야기- 정낭과 방아, 백승자 作	19

표 목 차

<표 1> 유백유 조합비.....	22
<표 2> 단풍유 조합비.....	22
<표 3> 사피유 조합비.....	22
<표 4> 백색 화장토 조합비	22
<표 5> 색 화장토 조합비.....	22
<표 6> 소성 곡선표.....	23



작 품 목 차

<작품 1> 기다림이 있는 풍경 하나.....	25
<작품 2> 기다림이 있는 풍경 둘	27
<작품 3> 기다림이 있는 풍경 셋	29
<작품 4> 기다림이 있는 풍경 넷	31
<작품 5> 기다림이 있는 풍경 다섯.....	33
<작품 6> 기다림이 있는 풍경 여섯	35
<작품 7> 기다림이 있는 풍경 일곱	37

Research on ceramic lighting based on the image of
Jeongjooseok, a pair of stone posts as a
guardian deity indigenous to Jeju

Nam-sook Kim

Industrial arts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in-ja Huh

Summary

Modern lighting fixtures occupy an important part as an aesthetic element in the interior design and are considered essential in the aspect of human emotions as well as their intrinsic functions.

The study explored the production of ceramic illuminating equipment, which lays more stress on the form than the function, in order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eramic lighting currently mass-produced and find a solution to them. The ceramic lighting was inspired by Jeongjooseok and has been manufactured as an artistic sculpture by means of dismantlement and mixture of figurative factors characteristic

of Jeongjoseok. It was designed in a way that it can have a practical and decorative function even when lights are put out. The research, by looking at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the goods,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atmospheric lighting, such as a wall-mounted illuminator, a chair lamp for the floor and a standing lighting unit for the table, has been turned out by grasping the constituent and molding of Jeongjoseok and transforming them into diverse images. An apparently changed figure of the product light led to made the indoor space look original and well-balanced.

Second, up-to-date ambience was created through the use of enamel of a soft hue such as green series and ivory series instead of a grave and dark tint of basalt. It made a foundation for a development of new colors which could reflect Jeju image.

Third, the ceramic lighting, a sculpture with illumination, was a vehicle for the expression of warm-hearted and genial sensibility and mentality of human beings thanks to the light, and it was possible to seek diversity in terms of interior design.

Fourth, the research sounded the possibility of the ceramic lighting being optimal in the aspects of practicality and decorativenes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uniformly-designed products and make a unique space presentation. Standardized parts of the lighting didn't fit the size and color of individual products, leaving various developments of the lighting accessories a pressing need. In addition, technical problems in the installation of the lighting were noticed.

The abov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above all, an active exchange between the manufacturer and the designer is desired to collect all the factors of function, design and luminous source of the lighting. It is desirable to develop ceramic lighting, the most beautiful space sculpture of the times the soil and light presents. Finally, I hope that the research, if insignificant, can help enrich everyday life, and a further study of ceramic illuminators and their production continue to be made to express the local color and mentality of Jeju by making up for the problems, based on the investigation.

I. 서론

1. 연구목적

빛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창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로서, 빛에 의해 공간이 형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특성을 갖는다. 우리는 빛을 통하여 사물을 인지하고 물체의 형태와 색을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며, 사회 환경의 미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¹⁾ 또한 빛을 담는 조명기구는 점차로 실내 환경과의 조화, 인간과의 관계 및 안정과 휴식을 위한 심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로 발전해가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산업의 발달로 조명등은 단순히 밝히기만을 위한 일차적 기능에서 벗어나 공간의 분위기 연출이나 예술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환경 미학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으며 조명이 갖는 심미적인 기능을 통해 시각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조형물로서 생활공간을 장식하기도 한다.

특히 도제 조명등은 점토의 물성, 가소성, 질감과 다양한 유약 색상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온화함으로 실내 분위기를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친화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 그 잠재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또한 인간에게 원초적인 심리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세척이 용이하여 실용적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여 공간을 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제 조명등의 장점을 살려 제주도의 대문을 상징하는 정주석의 이미지를 조형화하여 조명등을 제작하고자 한다.

정주석의 형상을 절단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도 하면서 현무암의 거친 질감과 정주석의 뚝려진 원을 다양하게 접목 시키고 해체하면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며 정주석의 단순함을 보완하기위해 제주의 서정적인 이미지인 말이나 새, 나무 등을 넣어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성을 중시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공간 연출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 따뜻

1) 신지연, 연꽃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 조명등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하고 온화한 느낌을 강조하여 공간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조명이 필요 없는 시간에는 조형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조명등을 디자인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인간은 인위적인 빛의 생산으로 그 활동 시간을 확장해 왔으며 현대의 조명 기구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능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 즉 조명등이 꺼졌을 때에도 하나의 조형물로서 그 공간을 장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명등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조명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하여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현재 실내장식으로 시판되고 있는 조명등을 분석한 뒤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정주석이 가지고 있는 조형미를 연구하여 조명등의 기능과 형태에 부합할 수 있고 현대인의 생활 감각에 어울리는 도제 조명등을 제작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문헌 자료나 답사를 통해 정주석의 유래 및 상징하는 의미 등을 연구하고 정주석의 조형미를 분석한다.
- 2) 정주석의 이미지와 그 형태를 해체 또는 단순화, 확대, 강조의 방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인의 정서에 맞도록 디자인한다.
- 3) 작품제작은 수축율과 힘의 방지를 고려하여 조형 혼합토를 사용하고 850℃에서 1차 소성 후 1250℃ 까지 환원소성 한다. 제작기법은 형태적으로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는 판 성형과 코일링 기법을 병행하고 형태 완성 후에는 화장토를 부분적으로 덧칠하여 유약의 발색에 변화를 준다.
- 4) 주거공간이나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필요로 하는 분위기 조명등(Mood lamp)을 중심으로 디자인하며 벽에 걸 수 있는 벽등과 바닥에 놓거나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 조명등을 제작하고자 한다.

II. 조명등의 개념과 특성

1. 조명의 개념 및 역사적 변천

1) 조명의 개념

조명(lighting, illumination)이란 “물체와 그 주변을 볼 수 있도록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²⁾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비추는 것”이라는 뜻은 단순히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기술’과 ‘예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명은 빛을 인간생활에 유효하게 사용하는 기술이며,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빛이라는 창조적 기술의 영역에 적용하는 하나의 예술로서 볼 수 있다.

자연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태양은 가장 위대한 조명이다. 또한 태양에 의해 비춰진 이차광원으로서의 달은 위대한 빛의 반사체에 의한 간접조명으로 희고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휴식과 안정을 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명의 전형이다. 또 겨울밤 하늘 가득히 반짝이는 별과 여름밤 하늘에 펼쳐진 은하수 등은 달에 의한 조명 못지않게 훌륭하여 달과 별의 상쾌한 간접조명의 조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조명 디자인의 이상이다.

인간이 최초로 만든 인공광원은 물체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빛을 조명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나무를 비빌 때 생기는 마찰열이나 부싯돌로 일으킨 불을 송진이 많은 소나무에 붙여서 등불로 사용한 관솔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인공광원은 꾸준히 발달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인류와 오랜 세월 친숙한 태양광을 목표로 발달되어 왔다. 조명은 연색성(演色性) 등의 결점이 다소 있으나 일정한 광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에서는 태양광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인 의미의 조명이란 “인공 광원인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기법과 같은 조명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조명디자인을 실시함으로써 어떤 공간에 적절한 수준의 인공적인 조도를 공급하고 편리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운 조명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³⁾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명에 사용되는 빛이 자연의 광원인 햇빛이 아

2) 국제조명위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 del` Edairage : CIE)에서 내린 정의. 이하 조명의 정의는 국제조명위원회 자료를 인용.

3) 나가자마 다쓰오키, 조명디자인 입문, 예경사, 1997, P68

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렇듯 조명은 생활조건을 더욱 안락하고 매혹스럽게 만드는 필요 요건이고 동시에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조명의 기능이 우리의 물리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구도 만족 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조명은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공간을 연출하는데, 물체의 형태를 결정하고 지각하게 하며 조도(照度)의 조절로 인해 인간의 쾌적한 활동을 돕는 실리적(實利的)인 기능과 함께 색과 질감 등을 돋보이게 하고 심리적으로 인간의 감정적 행위에 영향을 주고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장식적(裝飾的)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⁴⁾

2)조명의 발전과 역사

빛의 활용은 인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조명과 같은 빛의 도구적 활용은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가져왔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조명등은 빛의 사용과 더불어 실내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루이 14세 시대에는 거리조명 의무화가 시행됨으로써 현재의 가로등의 형태를 갖게 되었고, 1897년 이 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함으로써 사람들은 밤에도 낮과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광에 의해 활동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던 인간들은 전구의 발명으로 더 많은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태양빛에 맞추어 신체조건이 발달해왔으며 인간이 느끼는 색과 빛의 근원인 이 태양 빛을 인공으로 밤에도 내보내겠다는 것이 바로 조명연구의 역사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것은 거꾸로 사람들의 밤의 활동을 점점 확대시킨 결과를 낳기도 했다. 모든 물체는 태양아래서 보는 것이 제 색깔이다. 인공조명은 인류가 나무를 비벼 불을 얻은 이래 관솔불에서부터 동식물의 기름, 석유, 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태양광과 같은 빛을 내기 위해 발전을 거듭하였다. 밤에도 낮같이 일할 수 있게 한 편리한 문명이기었던 전등. 그러나 이내 이런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실내장식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 인공조명을 활용하는 디자인시대로 변해왔다. 1924년 독일 바우하우스의 빌헬름 바겐펠트가 디자인한 책상램프<도1>, 마치 둥근 달을 엮힌 것 같은 이 전등은 조명이 단순히 불 밝히기가 아닌 집안의 장식 요

4) 정연우, 힘의 변형을 주제로 한 도제조명등 연구, 서울 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5

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디자인으로 평가받았다. 전등 하나가 마치 조각 작품이나 그림처럼 실내 분위기를 더욱 현대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또 다른 분위기 효과를 보태고 있다. 20세기 초 아르누보시대의 작가들은 천장을 꽃무늬로 조각하면서 그 속에 백열등을 넣어 밤이면 환상적인 천장이 되도록 연출하기도 했다.

1934년 카르바딘이 내놓은 꺾어지는 있도록 책상램프<도2>는 부분 조명의 다양한 활용을 여는 과학적인 디자인으로 기록되었다. 굽혔다 폼다하는 팔의 신체조직을 전등에 다 옮겨 램프대가 꺾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향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빛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한 가변성 디자인으로 오늘날까지 조명기구의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

파리의 물리학자 조르주 클로드(George Claude)는 네온관⁵⁾을 방전시켜 여러 색의 광원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색의 장식 및 광고용 조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1930년에 형광등(fluorescent tube)이 개발되자 실내조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수은등이나 나트륨등(natrium lamp)은 형광등 이전에 발명되었으나 연색성(演色性) 문제로 실용화가 늦어졌다.

1964년 텅스텐 할로젠 필라멘트(tungsten-halogen filament)의 발명은 최소의 전기로 최대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고효율 조명기구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20세기 중반에는 조명의 용도가 명확해져서 실내조명에는 필라멘트 전등과 형광등이, 실외광고에는 네온등을 이용한 기구가 사용되었고, 거리의 가로등에는 나트륨 방전등(natrium-discharge lamp)이 사용되었다. 그 후 개발된 전등에는 할로젠 사이클(halogen cycle)⁶⁾을 이용한 요오드 전구(iodine lamp), 고효율 할라이드등(halide lamp)⁷⁾, 양광(陽光)램프⁸⁾ 등이 있고 태양광과 거의 비슷한 크세논 방전등(xenon-discharge lamp)이 있으며 미래의 조명으로 여겨졌으나 근래에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광체의 전압 발광등(electro-illuminescery lamp)이 있다. 효과 조명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는 대형 옥외 간판 등에 광고 효과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형광등을 조금 더 발전시켜 절전식 형광등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력소비등급이 높은 형광등과 안정기⁹⁾

5) 네온으로 충전된 관 : 내부를 진공시켜 네온가스로 내부를 충전시킨 관.

6) 전구에 응용된 순환원리.

7) 수은등을 개선하여 수은 외에 금속 할라이드를 첨가한 것.

8) 진공방전 때 중앙부근에 나타나는 고온 빛을 이용한 램프.

설비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소비전력량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바이오 조명(bio-lighting)이란 명칭으로 자연광에 가까운 광원을 생산하여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90년대에 이룩한 가장 놀라운 성과는 지하공간에서도 본격적으로 태양광을 볼 수 있게 하는 조명설비가 완전 국산화되어 미국, 일본과 동시대에 지하 공간 내 태양광 조명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러한 인공광원은 인류와 오랜 세월 친숙한 태양광을 목표로 발달되어 왔으며, 인간은 인공광원에 의하여 생활의 장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넓혀왔다.¹⁰⁾



도1. 빌헬름 바겐펠트가 디자인한 책상램프



도2. 꺾어지는 책상 램프

9) 형광등에는 필수적인 기구로 형광등의 전압을 증폭시켜 빛을 내도록 해 주는 것. 코아(기계식)안정기에서 전자식 안정기로 발전됨.

10) 동아 대 백과사전 p176

2. 실내공간에서의 조명등

인간은 실내 공간 안에서 주로 빛을 받고 있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빛과 그들의 대비를 통하여 나타난다. 또한 모든 형태는 그것의 성질에 따라 어울리는 빛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빛은 그 이미지에 적합한 형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빛의 이미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명행위는 불을 밝히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물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왔다.

조명은 쾌적한 조도와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간의 한 부속품에서 점차적으로 실내 환경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며 인간의 휴식과 안정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가치개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조명등은 인공 환경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로서 생활환경의 일부로 존재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각적 감성을 고려한 조형적 심미성까지도 만족시켜야 한다.

오늘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의 취향과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대량생산에서 찾기 어려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량 다품종 생산, 주문생산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테리어 측면에서 독특하게 디자인 된 조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유명 가구와 조명을 수입하는 국내 조명회사 두우모에서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아르테미데¹¹⁾의 제품<도3>은 단조로우면서도 조명 내부에서 투광되는 빛이 마치 우주에서 내려온 UFO를 보는 듯 신비감을 준다. <도4>은 침대 밑 테두리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은은하게 올라오는 빛으로 침대가 마치 구름위에 떠있는 듯한 가벼운 느낌을 주도록 설계한 침실이다.

<도5>는 여러 개의 매입등과 벽등으로 생동감과 예술적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거실 공간이다. 거실은 가족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므로 밝고 쾌적하면서도 디자인 측면에서 독특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도6>에서는 현대적인 욕실 공간으로서 소등을 여러 개 설치함으로써 아늑하며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명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조명은 생활공간을 풍요롭게 장식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며 빛을 내는 기구인 동시에 공간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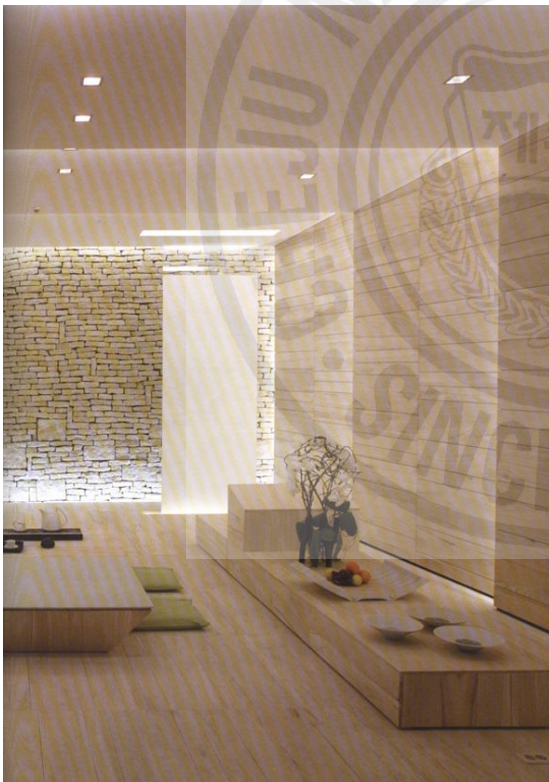
11) 이탈리아 명품 조명 브랜드: 월간디자인 2007.02



도3. 아르테미테 제품



도4. 침실 조명



도5. 거실조명



도6. 욕실조명

3. 도제 조명등의 조형적 특성

초기의 국내 도제 조명등은 대부분 외국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혹은 여주, 이천 등의 도자 산지에서 기존의 도제 제품을 구입하고 전기부품 만을 조립하여 생산하는 소극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도7>

현재 많지는 않지만 몇몇 조명 제조업체에서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다양한 소비층을 목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 과정은 대부분 볼트공장, 주물공장, 도자공장 등지에 외주(外注)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문 업체에서 생산되어지는 조명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대다수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실정 때문에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조명등을 생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일부 도예가들이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주거 공간 및 공공기관, 호텔 등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술적인 도제 조명등을 만들고 있다.

현대 도자 조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자 조명등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아보면 점토 단일재료로서 조명방식이 독특하고 다양하다. 투광성이 있는 소지에서 빛이 일정하게 베어 나오는 방식, 투각기법에 의한 방식, 점토의 물성적 측면을 강조하여 외압에 의해 갈라지거나 열려진 부분에서 빛이 유출되는 효과와 설치방법에 따른 다채로운 빛의 심미감과 공간미를 효과적으로 연출 할 수 있다.¹²⁾

신세영의 「Lighting」 <도8>은 선인장의 형태와 색상에 변화를 주어 재미있게 구성 하였으며 슈퍼화이트 소지의 반투광성을 이용하여 조명효과를 주고 있다. 설치작품인 백진의 「치유의 정신-상상여행」 <도9>도 반투광성 소지인 슈퍼화이트 소지를 이용한 작품으로서 조선시대의 백자 통병을 현대적인 감각과 기능으로 재구성하여 소지의 투광성을 이용하고 잔잔한 구멍을 뚫어 독특한 조명효과를 주고 있다.

김정옥의 「나무이미지들」 <도11>은 나무의 기둥을 단순화시키고 나뭇잎 형상을 투각하여 뚫린 공간에서 빛이 나오게 제작하여 숲의 이미지를 독특한 조형방식으로 살려냈고, 허민자의 「Fantasia」 <도10>는 현무암의 재질로 인체의 형상을 이미지화하여 현무암의 기공을 뚫어 빛이 새어 나오도록 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일본 유슈의 도자기회사 INAX에서 기업디자이너로 있는 최재훈은 「빛2004」 <도12>에서 여러 개의 판을 겹쳐 붙여 판과 판 사이에 깊숙한 공간이 있는 입방체의 모양으로 창的一部分에 조명을 설치해서 예술적인 조명기구를 제작 했고 「흙과 빛의 하모니」

12) 김민진, 선인장을 이미지화 한 도자 조명등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도13>에서는 흙의 질감을 살린 도자 타일에 청색 조명으로 장식해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도자에 접목된 청색 빛이 신비로움을 자아내게 한다.

조형 작품과 조명의 색상이 어우러져 현대적인 조형미를 느끼게 하는 조연수의 「I have got beautiful day<도14>는 흑색 도자 조형물에 유리재료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전통 색동 문양의 빛이 발산되는 색유리의 은은한 효과가 울동감을 더해준다.

이와 같이 도제 조명등은 인테리어 설계와의 연계성과 효과적인 설치에 따라 더욱 풍부한 주거 환경을 연출할 수 있어 앞으로의 디자인 발전에 따라 더욱 호응도가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상기 작품들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에는 실내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형작품이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환상적이고 독특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실내장식에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7. 알토조명, 테이블라이트조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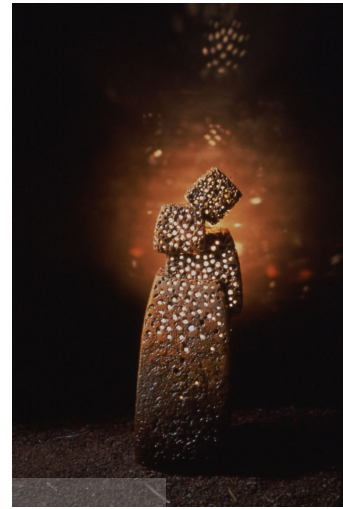
도8. Lighting, 신세영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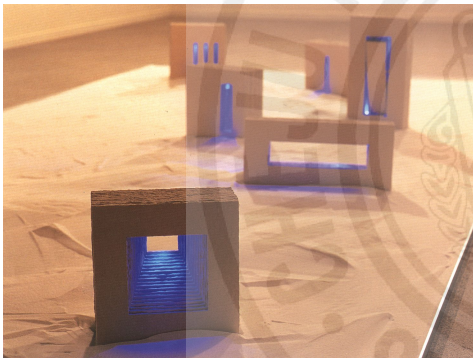
도9. 치유의 정신 5 - 상상여행, 백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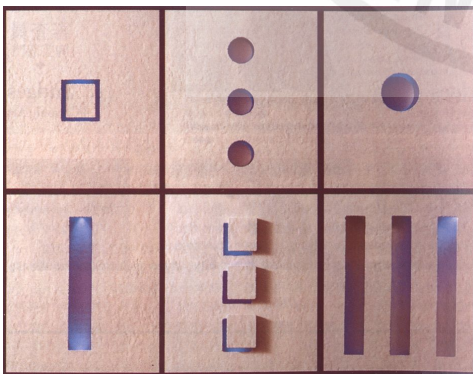
도10. 나무이미지들, 김정옥 作



도11. Fantasia, 허민자 作



도12. 빛 2004, 최재훈 作



도13. 흙과 빛의 하모니, 최재훈 作



도14. I have got beautiful day, 조연수 作

Ⅲ. 작품 제작의 이론적 배경

1.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정주석의 역사

제주도는 바다로 에워싸인 절해의 고도(孤島)이다. 거기에다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척박한 땅과 모진 바람, 비 많은 기후와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풍토적 요건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백제로의 조공과 섬김, 왜구들의 침탈, 1세기에 걸친 몽고의 지배, 정객들의 유형지로 이용되는 등 끊임없는 수난을 당해왔던 제주인들은 강인불굴의 의지로 이러한 악조건들을 이겨내었으며 그로 인하여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민속권(民俗券)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일상적인 의식주는 물론 신앙, 세시풍습 등이 독특하고 고어, 신화, 전설, 민요 등 구비전승(口碑傳承)이 풍부하며 이러한 지역문화의 특성은 옛 탐라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유적들에서는 물론 민속(民俗)과 정신문화에서도 개성적으로 드러나고 있다.¹³⁾

제주도의 문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섬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고유한 문화적 토양 위에 지조를 지키다 유배되어 온 선비들의 자립(紫笠), 자조(自助), 명예(名譽)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의 영향을 받아 특이한 민속 문화로 일구어 졌다.

이렇게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에서 제주사람들의 주거생활 뿐만 아니라 제주 여인들의 끈질긴 생활력으로 상징되는 좁녀들의 삶과 문화, 또는 소와 말을 방목(방목)하여 키웠던 축산문화 등 생계를 이루는 면에서도 짙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인의 거친 환경에서 진솔하게 살아가면서 얻은 삶의 지혜이며, 통신 수단인 기원이 된 것이 정주석이다. 정주석은 지금부터 약 760년 전인 고려 때부터 제주의 중 산간 마을에서 사용되다가 조선시대부터는 제주 온 고을에 일반화 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중 산간 마을에서 소와 말을 방목하면서 소나 말이 마을의 곡식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같은 담을 쌓았는데, 그 입구에 살채기나 섬비를 친 것이 정주석의 시초였다. 살채기나 섬비는 일종의 야외의 문에서 시작됐는데, 한라산 기슭에 방목중인 소나 말을 다시 가두기 위하여 세워 닫는 문으로 가느다란 통나무 너댓개나 나뭇가지로 엮

13) 현춘식, 제주도의 민속예술:〈제주도〉 76, 제주도, 1979

은 여단이문에서 비롯되었다.¹⁴⁾ 원래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던 정주목이 비바람을 맞아 오래 지탱하지 못하므로 그 재료를 돌로 바꾸어 놓았으면서도 이를 정주석이라 부르지 않고 정주목이라 불러 왔는데 이는 정주목에는 신이 깃들여 있다고 제주도 무속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신을 ‘주목 정실지신’이라 하여 ‘주목(注目)’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낭’이 걸쳐져 있으면 신이 통행금지를 시키는 것이 되고 ‘정낭’이 내려져 있으면 출입을 허락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주석의 재료가 돌로 바뀐 후에도 역시 그 이름은 ‘정주목’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주목<도15>은 시대적으로 앞선 구조물이고, 정주석<도16>은 후대에 그 정주목이 발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드는 것은 그 제조 방법이 간편하여 쉽게 만들어 설치 할 수 있으나, 제주의 비바람에 오래 견디기가 어렵다. 10년도 못가서 나무가 썩거나 구멍이 망가져서 못쓰게 될 염려가 있다. 여기에 영구적으로 사용해도 손상이 없는 것이 정주석이다. 이 정주석과 정낭은 제주 선인들이 빚어낸 도둑, 거지, 대문이 없는 삼무의 미풍양속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지금은 문명의 이기에 밀려 사라진 풍물이다. 제주인들은 거칠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근면, 절약, 상부상조를 미덕으로 삼았고 좁은 섬 안에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구걸을 하지 않아 도둑과 거지가 없었으며 대문도 없이 살았다. 원래 제주의 민가들은 대부분이 초가집들이었는데 이 가옥의 울레 앞에 세워 대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정주석이다. <도17>

정주석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물론 집에 담장이 둘러 있어 자기 소유의 경계는 이미 있는 셈이지만, 출입구인 ‘울레’가 긴 경우 어디서부터 자기 소유인가를 표시할 필요가 생긴다. 여기에 정주목을 세워 정낭을 걸쳐놓으면 소유의 경계가 확실해진다.

둘째는 마소의 출입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제주도에서는 마소를 방목하는 습속이 있어 길거리에서 마소들이 어정거리며 풀을 뜯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말과 소들은 집 마당에서 건조시키는 곡식이나 우영밭(텃밭)의 채소, 묘종을 먹어 치울 위험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이 집을 나갈 때는 정주석에 정낭을 걸쳐놓아야 방목하는 마소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셋째는 주인이 집안에 있고 없음을 알리는 통신수단을 겸하고 있다. 흔히 주인이 이웃 집에 잠시 다니러 갈 때에는 정낭을 하나만 걸쳐두고 간다. 이는 금방 올 것이니 마소

14) 한종길, 제주 이미지를 형상화한 장신구 연구:正株目(정낭)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1995

의 출입만 대충 막고 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주인이 조금 멀리 나가서 늦게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정낭을 2개 걸쳐놓고 나간다. 이것은 마소의 출입을 훨씬 단단히 막고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만일 주인이 아주 먼 곳에 가서 종일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정낭을 모두 걸쳐놓고 나간다.<도18, 19, 20> 이것은 마소나 사람의 출입을 아주 단단히 막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정낭이 하나도 걸쳐 있지 않으면 주인이 집안에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낭을 몇 개 걸쳐놓는가는 주인의 출타 거리에 따라 마소의 출입을 막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정낭을 걸쳐놓은 상태로써 찾아온 손님에게 주인의 소재를 알리는 통신수단이 되기도 했다.

넷째는 지역사회의 유대강화 기능이다. 다른 지방처럼 대문을 만들어 울타리 안을 폐쇄하지 않고 개방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이웃이나 온 마을 사람이 서로 마음을 열고 정이 두터워져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여 유대관계가 강화되었다.¹⁵⁾ 따라서 정주석과 정낭은 제주인들의 정직하고 순박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평화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15) 현용준, 제주의 정주석, 제주돌문화공원, 2006



도15. 정주목



도16. 정주석



도17. 정주목(정남)



도18. 정남이 한개 걸쳐진 모습



도19. 정남이 두개 걸쳐진 모습



도20. 정남이 세개 걸쳐진 모습

2. 정주석의 형태와 조형성

제주도의 지리적, 기후적인 자연 환경은 제주인들로 하여금 척박한 땅을 갖고 거친 바다를 다스리며 스스로 일어서려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게하고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은 부(富)를 축적하기보다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과 조냥 정신을 갖게 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형성되어진 서민적 생활문화는 제주인들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들의 삶 자체를 타 지역과 구분하는 독특함을 지니게 만들었다.¹⁶⁾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제주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많은 조형물들은 아무런 기교 없이 자연 그대로를 보여준다. 특히 돌이 많은 제주도에는 돌문화 유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연질의 현무암을 이용한 소박하고 투박한 형태의 정주석은 인위적인 것이 배제된 담백함을 담고 있다. 정주석은 제주도 민가에 드나드는 골목길인 올레 양쪽에 세워 놓는 기둥이다. 그리고 정주석의 둥그런 구멍에 굵은 나무 막대기를 가로로 걸쳐놓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 막대기를 ‘정낭’ 또는 ‘정살’ 이라한다.

정주석의 형태는 구멍형<도21>과 홈형<도22>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구멍 형은 자연 석이나 다듬은 돌기둥에 둥글고 큼직한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이다. 구멍의 수는 하나에서 다섯개까지 가지각색이다.<도23, 24, 25>

구멍이 세 개 뚫려 있는 것을 기본형으로 볼 때 그 크기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보면, 높이 120cm, 두께 10cm, 구멍의 직경 12cm, 구멍 간격 20cm 정도이다. 이 구멍형의 경우 마치 비석을 세우듯 받침돌을 만들어 박아 세운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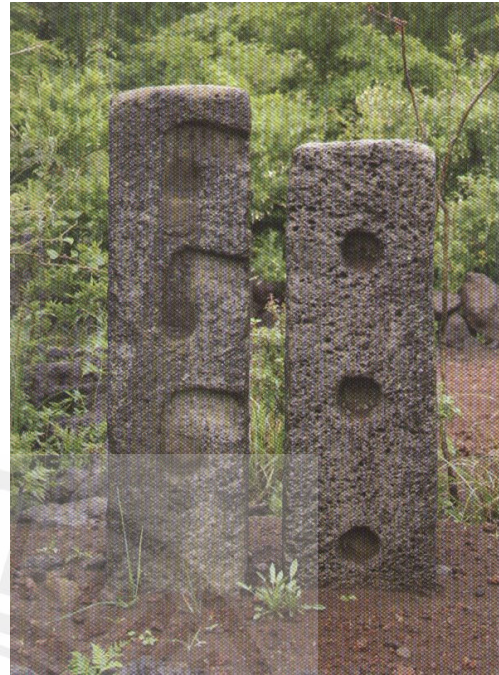
정주석과 정낭의 형태를 볼 때 크게 4각기둥과 뚫린 원 그리고 정낭이라는 선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주석의 4각 기둥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소박하고 거침이 없다. 그런 반면 정낭은 나무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이런 거친 면과 부드러운 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주석의 구멍은 적당히 다듬어 답답한 현무암 덩어리에 공간적인 여유를 주는 완벽한 조형성을 갖는다.

더구나 돌의 형태를 크게 다듬지 않고 그 돌의 크기에 알맞게 뚫려진 구멍들의 크기, 또 갯수의 다양함 등이 하나의 조형작품을 연상케 하며 위치할 공간에 맞게 크기를 골라 설치했던 데서 제주인들의 공간에 대한 조형의식을 느낄 수 있다.

16) 제주민속·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문화자료총서>4, 1996



도21. 구멍형 정주석



도22. 홈형 정주석



도23. 두개의 구멍이 있는 정주석



도24. 한개의 구멍이 있는 정주석



도25. 다섯개의 구멍이 있는 정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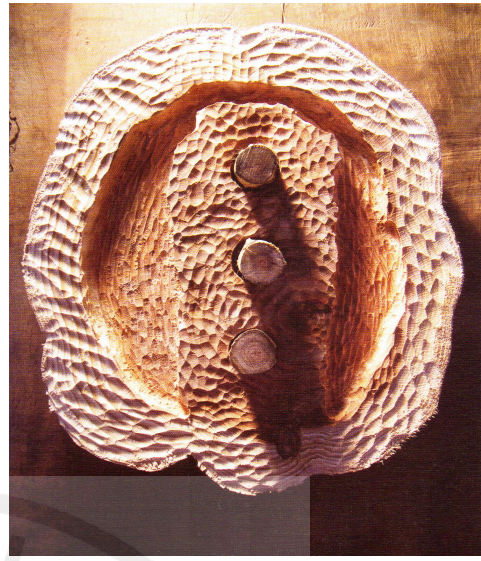
3. 정주석을 주제로 한 작품

많은 작가들은 본인이 태어난 지역의 문화나 지역 특색에 맞는 작업을 하거나 옛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잠재돼 있던 감동과 체험, 경험과 정서 등을 통하여 작업을 한다. 그중 조형 예술은 어떤 사물의 형태나 이미지를 재현해 내기도 하고 그 본질을 축약적으로 표현 하여 작가의 정신과 이념을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제주에 조각공원을 갖고 있던 정관모는 가끔씩 제주를 방문하면서 느낀 정주석의 매력을 작품으로 표현한 작가다. 구멍이 뚫린 긴 기둥을 세우고 그 구멍을 가로질러 정낭이 갖는 선적 이미지로 가는 기둥을 걸쳐 놓은<정주석의 모뉴멘탈리티><도26>는 현대조각으로 재탄생되어 제주의 이미지를 십분 발휘 하였다. 김정은의 「제주-이미지」<도27>는 통나무의 단면을 깎아서 하나의 불규칙한 원형 테두리 안에 정주석과 정낭의 형태를 넣은 작품이다. 나무의 질감과 거칠게 파 놓은 조각도 자국이 제주인의 삶을 표현하듯 거칠고 남성적인 느낌을 갖게한다. <도28>은 양용방의 「기억 속으로」 라는 작품이다. 세워진 한 개의 정주석과 넘어져 있는 정주석, 그리고 그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정낭이 내려져 꼬여있고 그 정낭이 땅에 묻혀 다시 썩어 돌아날 것 같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하며 문화유산의 흔적이 사라져 감을 아쉬워하는 작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백승자의 「민구(民具)이야기-정낭과 방아」 <도29>에서는 제주의 자연미가 있는 오름과 정주석의 길 다란 정낭의 형태에 토우를 접목시켜 목가적인 아름다움을 동심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생동하는 제주의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상기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정주석의 이미지를 작가의 심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정주석이 면, 선, 원의 조형적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조형작품화 하는데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도26. 정주목의 모뉴멘탈리티, 정관모 作



도27. 제주-이미지, 김정은 作



도28. 기억속으로, 양용방 作



도29. 민구(民具)이야기-정낭과 방아, 백승자 作.

IV. 제작과정 및 시작품 설명

1. 제작 의도

현대의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는 기능 외에도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예술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도예분야에서도 생활 속에 예술성을 부여 시킬 수 있는 조명등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어 빛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정서를 정신적 영역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명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환경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조명은 그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내 환경 즉, 인테리어 요소로서 바람직한 공간연출을 위한 조형물로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풍토적 특성과 제주인의 정서와 삶의 채취가 베어 있는 정주석의 다공질 현무암의 질감과 그 조형성을 바탕으로 제주인의 정직하고 순박한 삶을 작품 안에 표현하려 하였다. 전체적인 작품의 구성은 정낭이 생략된 정주석만의 이미지를 갖고 단단하고 강한 느낌의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의 돌을 기본 형태로 하며 다섯 개의 면에 정주석의 이미지를 공간적 비례로 나누어 표현하거나 정주석을 절단하여 일부분만 크게 확대 또는 단순화 시켜보았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시각을 바꿀 때마다 다른 모양의 정주석이 보여 지도록 의도하기도 하고, 제주의 향토성이 잘 나타나는 말과 팽나무, 새를 결합하여 연구자의 심상을 통한 제주의 서정성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들은 현무암의 질감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음각을 하거나 투각 기법으로 구멍을 뚫고 빛이 발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명등으로서의 기능성 보다는 빛에 의한 작품의 조형성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온화한 빛의 느낌을 강조하여 실내의 분위기를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의 색조는 푸르름, 젊음, 평화를 상징하는 그린(Green) 계열과 백색조를 주조로 하여 현무암의 질감을 밝게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검은 현무암의 느낌을 배제시키고 실내의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베이지 톤으로 발색시켰다. 또한 차분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색채로 제주인의 거친 삶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성과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단순 질박한 심성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2. 제작 과정

본 연구 작품은 정주석의 4각 기둥을 기본으로 하여 벽걸이 조명등과 탁자위에 놓을 수 있는 스탠드 조명등, 그리고 의자로도 사용 할 수 있는 의자 조명등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지

본 작품 제작에 사용한 소지는 건조 강도가 강하고 수축률이 적은 혼합토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화장토와 음각 장식의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백색 화장토에 색 안료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2) 성형

성형 기법은 주로 말아 올리기 기법(Coil Method)과 판성형 기법(Slab Method)을 주로 사용하였다. 작품1,2,3,4,5는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사각 모양을 흙가래를 말아 올려 가며 형태를 완성하고, 반 건조 상태에서 다섯 개의 면에 스케치를 한 후 부분적으로 크랙을 주거나 현무암을 찍거나 조각칼로 자연스럽게 투각해서 빛이 투광될 수 있게 제작하였다. 작품6,7은 벽등으로 일정한 두께의 판에 일부분은 속파기를 하거나 말아 올리기 기법으로 형태를 완성한 후 현무암으로 찍거나 조각칼로 반복해서 투각했다. 작품6,7은 경우에 따라 빛이 투광하기도 하지만 작은 구멍을 작품 위에 뚫어 빛이 직접 발산되는 효과를 주려고 하였다.

3) 건조

크기가 큰 조형물일수록 건조수축에 유의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작품을 완성하고 투각이 끝난 후에는 공기의 온도, 수분함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환경의 실내공간에서 건조를 시켰다. 그리고 건조 상태가 일정하도록 신문지와 비닐을 사용하여 장시간 덮어놓은 후에 조금씩 열어가며 서서히 건조시켰다.

4) 장식과 시유

초별구이를 한 작품의 거친 면과 투각된 면에 색 화장토를 일정량 바른 후, 어느 정도 건조되면 붓으로 백색 화장토를 얇게 덧바른다. 그리고 작품에 따라 그 위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반복해서 긁어주거나 스폰지로 닦아낸다. 표면 장식이 끝난 후 백색 화장

토를 바른 부분에는 유백유를 스프레이 시유하고 색 화장토를 입힌 투각된 거친 면에는 단풍유를 스프레이 시유하여 음각 장식의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Green 계열의 색 안료와 백화장토를 써서 제주 현무암의 어둡고 투박하고 무거운 색채에서 벗어나 밝고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변환시켜 연구자가 느끼는 제주의 색을 찾고자 하였다.

<표1> 유백유 조합비(%)

안양 장식	카올린	규석	백운석	탄산칼슘	탄산바륨
42.7	31.6	4.9	10	5.4	5.4

<표2> 단풍유 조합비(%)

장석	석회석	활석	바륨	카올린	규석	철
8	30	2	3	34	22	15

<표3> 사피유 조합비(%)

장석	석회석	탄산마그네슘	카올린	규석
22	9.3	13.9	17.8	37

<표4> 백색 화장토 조합비(%)

규석	와목	장석	지르콘
40	40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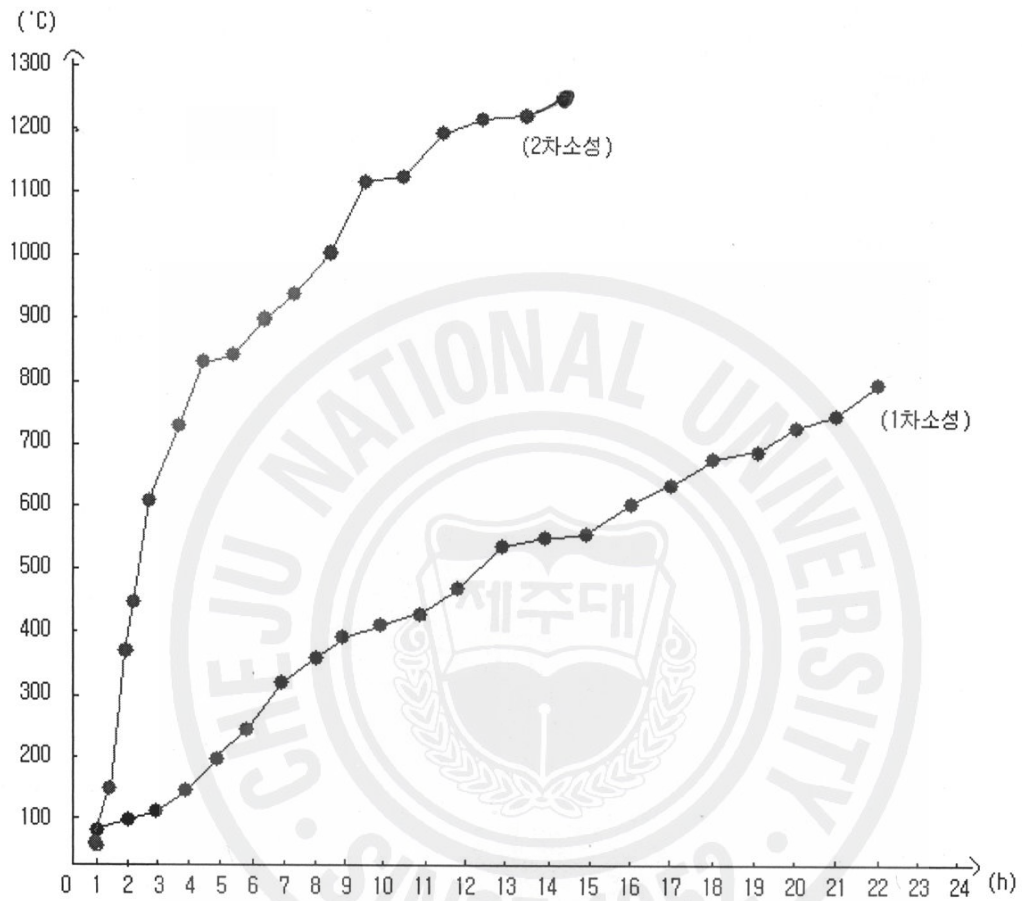
<표5> 색 화장토 조합비(%)

백색화장토	Blue Green 안료	Yellow 안료
50	30	20

5) 소성

소성은 800~850℃로 1차 소성하고 소지와 유약의 발색을 고려하여 1,250℃로 2차 환원염소성 하였다

<표6> 소성 곡선표



3. 시작품 설명

<작품1>

정주석이 서 있는 형태를 표현한 작품으로서 세 개의 정육면체를 쌓아올려 정주석의 이미지를 표현한 스탠드 조명등 이다.

4각기둥의 다섯 면에 원을 음각하여 정주석 구멍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전체적인 표면에는 현무암의 질감을 주고 투각된 부분에서 빛이 발산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정주석에 정낭이 하나도 걸쳐있지 않음은 집안에 사람이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와도 같은데 주인의 입장에서 누구든 쉬어 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소박하고 훈훈한 제주인의 심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지는 내화성이 강하고 수축율이 적은 조형 혼합토를 쓰고, 밀판을 만들어서 흙가래로 쌓아 올린 후 다시 윗 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정육면체의 사각형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넓은 나무막대로 두드려 가면서 면과 각을 만들어 주고 반 건조 상태에는 날카로운 톱날을 이용하여 표면을 정리했다.

정주석의 질감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현무암으로 찍어낸 후 음각기법으로 파내거나 투각하여 빛이 발산되게 하였다.

유약은 초벌 후 돌 느낌이 나는 곳에는 색 화장토를 붓으로 칠 한 후 단풍유를 강하게 스프레이 시유하고 정주석의 구멍을 나타낸 원은 백 화장토를 바른 후 사피유를 덧발라 흙 형 정주석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작품1, 기다림이 있는 풍경 하나 16*16*38 조형 혼합토 , 색화장토, 단풍유, 사피유

<작품2>

정주석 세 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형상의 작품이며 각 정주석에는 현무암의 질감과 구멍의 형태를 다양하게 배치하면서 제작 하였다.

안이 흰하게 들여다보이는 제주의 울담이나 사람이 넘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넘어 들어갈 수 있는 초가 입구의 정주석은 여유 없이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 믿고 의지했던 제주의 생활상을 암시적으로 알려준다. 이처럼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었던 제주인의 심성을 거친 현무암 질감 속에서 투영되는 빛을 통해 나타내고, 비오는 날 정주석 끝에 홀로 앉아있는 새를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소지는 내화성이 강하고 수축율이 적은 조형 혼합토를 쓰고 밀판을 만들어서 흙가래로 쌓아 올린 후 다시 윗 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길다란 직사각형의 형태를 고르게 만들기 위해 넓은 나무 막대로 두드려가며 형태를 완성시키고, 반 건조 상태에서 현무암 질감 표현을 하기 위해 돌로 두드리거나 조각칼로 음각기법으로 파내거나 투각하여 빛이 발산되게 하였다.

그리고 세 개의 조명을 나란히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직사각 형태로 길게 만들어서 작품의 조형성을 더욱 강조시켰고, 조명이 꺼진 후에도 하나의 조형물로서 공간 연출을 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유약은 돌 느낌이 나는 거친 부분에는 색 화장토를 덧바르고 단풍유를 스프레이 시유하고, 나머지 부분엔 백 화장토를 발라서 유백유로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작품2, 기다림이 있는 풍경 돌 12*8*40 조형혼합토 , 색화장토, 단풍유, 유백유

<작품3>

정주석의 면과 원을 크게 확대 표현한 벽등이다.

확대된 정주석의 구멍에 새나 말이 함께 놓여 있는 모습을 담아 평화롭고 서정적인 제주풍경에서 오는 감흥을 회화적 느낌으로 표현했다. 기다림이 있는 건 왠지 쓸쓸함도 있지만 벽등 측면과 윗면에서 은은하게 세어 나오는 빛으로 지친 하루 뒤에 오는 여유로운 오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작가의 심상을 통해 표현하였다.

점토는 내화성이 강하고 수축율이 적은 조형 혼합토를 쓰고 넓은 정사각형 흙 판을 만들어서 흙가래를 올려 쌓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반 건조된 상태에서 뒤집은 후 조각칼로 음각하고 흙 표면은 그대로 살리고 바람 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백 화장토를 덧바른 후에 송곳으로 곡선이나 직선을 따라 반복해서 선을 그어준 후 유백유로 스프레이 시유해서 마치 유화의 마띠에르 느낌을 주려 하였다.

거친 질감이 있는 정주석 표현은 현무암을 반복해서 늘려 찍어준 후 조각칼로 빛이 발산 할 수 있게 음각하거나 투각 한 후 단풍유로 강하게 스프레이 시유하고, 벽등이므로 빛이 옆면까지 투광되는 효과를 주었다.



작품3, 기다림이 있는 풍경 셋 25*25*6 조형혼합토 , 색화장토, 단풍유, 유백유

<작품4>

직육면체를 기본 형태로 한 의자등이다.

문을 통해 나오는 것은 곧 시작이며 기다림의 끝인 셈이다. 그 기다림이 하나의 휴식과도 같은 여유로움이고 희망과 도전이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디딤돌과도 같다. 지친 현실에서 휴식이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다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빛이 은은하게 투영되는 의자를 통해 그 디딤돌을 표현하려 하였다.

다섯 면에 각기 다른 정주석의 일부분을 크게 부각 시킨 그림을 음각해서 어찌하면 맞출 수 있을 것만 같은 퍼즐을 연상하게 하였고 정주석의 구멍이나 정주석 머리끝에 새나 팽나무 등을 양각하여 기다림에 대한 느낌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지는 내화성이 강하고 수축율이 적은 조형 혼합토를 쓰고, 윗면을 먼저 만들어서 흠가래를 쌓아 올린 후 밑면을 완성시켰다. 이때 밑면의 굽 부분을 일정부분 잘라내서 빛이 밑으로 투영되는 효과를 주었다. 형태가 완성된 후 반 건조된 상태에서 뒤집어서 수평을 맞추고 날카로운 톱날이나 조각 도구를 이용해서 표면을 정리 한 후 원하는 그림을 그린 후에 음각하였다.

그리고 정주석의 다공질 현무암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건조되기 전에 현무암을 찍은 후 조각도를 이용해 음각 기법으로 파내거나 빛이 투영 될 수 있게 투각하였다. 유약은 초벌 후 색화장토와 백화장토를 붓으로 바른 후 단풍유와 유백유를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작품4, 기림이 있는 풍경 넷 30*30*50 조형혼합토 , 색화장토, 단풍유, 유백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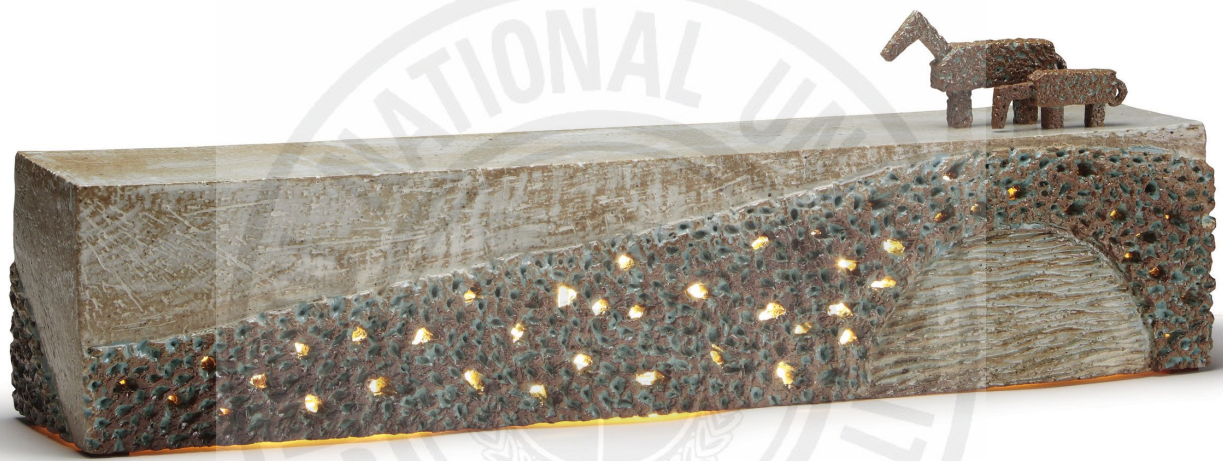
<작품5>

긴 직사각형 모양의 탁상용 조명등이다.

정주석의 외각 선을 가로로 길게 양각하여 표현하였다. 표현된 정주석의 외각선이 마치 제주의 오름을 연상하게 하기도 하는데 오름 위에 있는 한 쌍의 제주마는 제주 자연이 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랜 시간 그 자연과 상생하는 법을 터득하여 온 제주인을 대변하기도 한다.

소지는 내화성이 강하고 수축율이 적은 조형혼합토를 쓰고, 가로로 긴 윗면을 먼저 만든 후 흠가래를 쌓아 올린 후 밑 부분을 완성하였다. 직육면체의 사각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넓은 나무 막대로 두드러가면서 면과 각을 만들어 주고 반 건조된 상태에 뒤집어서 날카로운 톱날이나 조각도를 이용해 표면을 정리했다.

정주석의 거친 다공질 현무암 질감을 잘 나타내기 위해 완전 건조되기 전에 현무암으로 찍은 후 조각도로 음각기법으로 파내거나 투각하였다. 유약은 초벌 후 색화장토와 백화장토를 바른 후 단풍유와 유백유로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작품5, 기다림이 있는 풍경 다섯 10*50*16 조형혼합토 , 색화장토, 단풍유, 유백유

<작품6>

하나의 회화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 도제 벽등이다.

회화의 마띠에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거친 조각도구로 긁어내는 작업을 반복했다. 마치 바람 부는 오름 위에 서 있는 풍경을 연상하게 한다. 기다림이 있는 곳엔 모진 역경도 있는 것처럼 힘든 삶 뒤에 찾아온 휴식은 편안한 감동을 준다.

사각 판 위에 정주석의 이미지를 부분표현하고 빛이 발산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 돌출된 정주석 측면에 구멍을 뚫었다. 은은한 조명 빛이 마치 오후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

소지는 내화성과 수축율이 적은 조형 혼합토를 쓰고 두껍게 판을 만들어서 깎아 내거나 속 파기 작업을 해서 형태를 완성시켰다. 견고한 직육면체의 날카로운 각 보다는 점토가 잘린 면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고 거친 조형토의 장점을 그대로 살렸다. 거친 현무암 느낌의 정주석 표현은 현무암을 찍어내거나 음각기법으로 파내는 작업을 반복했다. 초벌 후 표면의 거친 부분에 화장토를 덧바르는 작업과 조각칼로 긁어내는 방법을 통해 바람 부는 풍경을 연출하고 정주석 표현 부분에는 색화장토를 덧바르고 단풍유와 유백유를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작품6, 기다림이 있는 풍경 여섯 50*20*5 조형혼합토 , 색화장토, 단풍유, 유백유

<작품7>

작은 사각 도판을 여러 개 나열해서 조합한 도제 벽등이다.

정주석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단순화시켜 현무암의 거친 질감과 정낭의 뚫려진 구멍을 음각하거나 투각하여 정주석 이미지를 조형화 시키면서도 나무, 새, 말 등을 접목시켜 제주의 서정적인 자연풍경에서 오는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벽등은 스탠드 조명만큼 강한 빛을 발산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그림 액자처럼 벽면을 장식하는 인테리어적 요소가 된다.

소지는 내화성이 강하고 수축률이 적은 조형혼합토를 쓰고 두툼한 정사각형의 도판을 만들어서 속 파기를 하거나 흙가래로 말아 올리는 방법으로 제작하고 반 건조된 상태에서 표면을 정리해 뒤틀림이 없게 하였다.

정주목의 질감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현무암으로 찍어서 음각기법으로 파내거나 투각하여 빛이 발산 되게 하였다. 유약은 초벌 후 돌 느낌이 나는 곳에는 색 화장토를 붓으로 칠한 후 단풍유를 강하게 스프레이 시유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백화장토를 발라 유백유로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작품7, 기다림이 있는 풍경 일곱 85*17*5 조형혼합토 , 색화장토, 단풍유, 유백유

V 결 론

현대조명등은 실내장식에 있어서 공간의 미적 요소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명의 기능과 더불어 인간의 정서적인 면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량생산 체제에서 공급되고 있는 도제 조명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조명등의 기능보다는 조형성이 보다 강조된 도제 조명등의 제작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주의 정주석을 소재로 하여 정주석이 갖고 있는 조형요소들을 해체하고 조합해 가며 예술적 차원의 조형물로 제작하였으며 실용적이면서도 장식적인 도제조명으로써의 기능과 소등 시에도 장식적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작품 제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정주석의 구성요소들과 그 조형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이미지로 변환시켜 벽에 걸 수 있는 벽 조명등과 바닥에 놓는 의자 조명등,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하는 스탠드 조명등 등, 분위기 조명등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는데 빛에 의한 작품의 조형성의 변화로 실내 공간을 개성 있고 안정감 있게 연출 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무겁고 어두운 현무암의 색조에서 벗어나 그린 계열과 아이보리 계열의 부드러운 색조의 유약을 사용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모던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고 제주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색채개발에 대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조명이 가미된 조형물인 도제 조명등은 그 빛으로 인하여 따뜻하고 온화한 인간의 감성과 심성 표현에 적합한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인테리어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넷째, 획일화된 디자인의 상품과 구별되고 개성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실용적 측면, 장식적 측면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제 조명등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었으나 규격화된 조명 부품이 작품의 규격이나 색상에 맞지 않아 조명부품의 다양한 개발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되었으며 조명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다.

상기 연구 결과 조명등의 기능적인 요소, 디자인적인 요소, 광원의 요소가 모두 수렴되기 위해선 업체와 작가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느꼈고, 시대의 새로운 조형물로

서의 흡과 빛이 연출해 내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조형물인 도제조명등의 개발 가능성이 바람직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인간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제주의 향토성과 제주인의 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제조명등 연구와 작품 제작을 계속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정식, 「제주의 신앙과 돌」, 제주돌문화공원, 2006
- 김동섭, 「제주의 생활과 돌」, 제주돌문화공원, 2006
- 강창언, 「제주의 동자석」, 제주돌문화공원, 2006
- 현용준, 「제주의 정주석」, 제주돌문화공원, 2006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1996
- 현춘식, 「제주도의 민속예술」, <제주도> 76, 제주도, 1979
- 제주문화자료총서4, 「제주민속-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1996
- 나가지마 다쓰오키, 「조명디자인 입문」, 예경사, 1997
- 신지연, 연꽃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 조명등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정연우, 힘의 변형을 주제로 한 도제조명등 연구, 서울 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5
- 한용길, 제주이미지를 형상화한 장신구 연구 : 正株目 (정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5
- 김민진, 선인장을 이지지화한 도자조명등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백승자, 제주민구류를 응용한 도자표현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 월간디자인, 이탈리아 명품 조명 브랜드, 2007, 2.